특별기고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화 '플로깅'

고 태 언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바람이 먼저 길을 내는 섬, 제주 이곳에서는 걷는 일이 곧 풍경을 읽는 일이 된다. 돌담 사이로 스미는 바다 냄새, 귤밭을 스치는 햇살, 오름 능선을 타고 흐르는 구름의 그림자까지. 그런데 요즘, 이 길 위에 작은 변화가 보인다. 허리를 한 번 더 굽히는 사람들. 손에 장갑을 끼고, 봉투를 들고, 한 걸음마다 무언가를 줍는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제주를 '완주'하고 있다. 이름하여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지만, 제주에서의 플로깅은 조금 다르다. 이 섬에서는 플로깅이 하나의 문화가 된다. 자연을 소비하지 않고,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유명 관광지를 찍고 떠나는 대신, 해안도로의 작은 캔 하나, 오름 입구의 비닐 한 장을 통해 이곳에 '머문 흔적'을 남긴다. 아니, 흔적을 지우며 자신의 발자국을 새긴다.

제주의 해안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 돌담길을 걷는 사람들. 예전에는 '얼마나 멀리 갔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잘 남겼는가'가 중요해졌다. 플로깅을 하는 사람들은 속도를 줄인다. 풍경을 더 오래 본다. 그리고 땅을 더 자주 바라본다. 그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걷기는 관광에서 책임으로, 운동에서 돌봄으로 변한다.

제주의 상징인 오름과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늘 같지 않았다. 플로깅은 거창한 환경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다. 누군가의 '의무'가 아니라, 나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한 손에 쓰레기를 쥐는 순간, 우리는 이 섬의 손님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관리자가 된다.

플로깅은 혼자 해도 좋지만, 함께할 때 문화가 된다. 친구와, 가족과, 동료와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경쟁 대신 협력이, 소비 대신 배려가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아이들은 왜 쓰레기를 주워야 하는지 묻고, 어른들은 왜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길 위에서 세대가 만나고, 가치가 전해진다. 제주에서 플로깅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플로깅은 더 이상 쓰레기 줍는 활동이 아니라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되고 있다. 제주에는 이미 그 문화가 자리 잡을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오름이 있고, 올레가 있고, 바다가 있고, 무엇보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예산이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싶은 선순환 장치를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과 관광객이 걸음걸음은 그 걸음이 쌓이면, 제주의 풍경도, 공동체도,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달라질 것이다. 아마 머지않아 이런 말이 자연스러워질지도 모른다. 이번 주말엔 어디 플로깅 갈까? 아침 산책의 한 장면이고, 주말 러닝의 일부이며, 관광객들은 여행 일정 속의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아름다운 동행 문화가 될 것이다.

사설

국책사업인데도 국비지원 인색 '책임 방기'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통합돌봄 사업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런데 통합돌봄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을 위해서는 91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며 공무원 27명에 대해 6개월치 인건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기간도 2년으로 국한됐다. 도는 공무원 91명을 증원하면 향후 5년간 인건비 등 295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돌봄 공무원 증원 예산까지 지방정부가 떠안게 돼 지방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통합돌봄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국책사업인데도 국비지원은 제한적이다.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지방정부로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4820억원까지 발행한 상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앞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른 통합돌봄은 복지의 핵심이다. 정부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통합돌봄의 완전체를 구현해야 한다.

점점 커지는 이재명 정부 제주 소외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제주 발전전략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실망스럽다. 지난해 12월 업무보고과정에서 제주4·3 강경진압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 "4·3 유족 입장에서 매우 분개할 일"이라는 언급만 있었을 뿐이다. 제주는 전북과 함께 아예 '타운홀 미팅'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해 직접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5극3특 체제'에 대해 '3특' 소외론까지 나오면서 4개 특별자치도시·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는 지난 8일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 빈 강정만 남긴다면 이는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역차별 저지에 공동 대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자칫하다 소외론을 넘어 '대한민국 보물섬' 제주를 홀대한다는 지적까지 나올 수도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 시점이 다가올수록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역 방문이 어려워지는 만큼 제주 방문일정이 더 미뤄져선 안된다. 일각에서는 제78주년 4·3추념식 때 이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청정에너지 자원과 자원순환 선도지역과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등 15개 세부과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5극'에 비해 후속조치 계획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발과 정부차원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열린마당

설 명절, 선물 하나 더 챙겨야 할 이유

좌 승 훈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묻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따뜻한 명절이 화재 사고로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설을 앞둔 지금, 우리가 꼭 점검하고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 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주택 화재는 밤이나 새벽에 발생한다. 불이 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잠든 가족을 깨우고, 소화기는 불길이 커지기 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가 어렵지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소화기 역시 거실이나 주방 한편에 비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가정이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설치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면, 과일이나 건강식품과 함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안전은 말로 전하는 효도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정책과 현장 간극 줄여야 만족도 올라"

오 지사, 한림항 위판장 방문

○…9일 새벽 한림항 위판장 현장 점검에 나섰던 오영훈 지사가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월간 정책공유회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주문.

오 지사는 한림항 구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공기 단축이 절실한 점을 꺼내며 "사무실에서 부서끼리 확인하는 것과 현장에서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차이를 줄여야 도민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강조.

이어 "최근 확대된 수요응답형 버스 등 일부 정책에서 도민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읍면 지역까지 정책을 확대할 때는 행정시 담당 부서,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 진선희기자

공공기관 만감류 소비 요청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9일 서귀포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립기상과학원을 찾아 만감류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

오 시장은 이날 두 개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차담회를 갖고 "미국산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으로 우리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대표 연금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앞장서서 '서귀포 만감류 선물 보내기'에 적극 나서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워달라"고 당부.

오 시장은 이어 "이상기후와 잦은 기상재해로 감귤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협조가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첨언. 위영석기자

부 고

양경철(어린이재단) 어머니 강가자(성도·향년 85세)께서 서기 2026년 2월 9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2월 10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6년 2월 11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4층)
▶장 지 : 양지공원

아 들 양경철 며느리 허진이
딸 선일 사 위 고대로
순희 고기수
순임
순주

※ 연락처 : 양경철 010-5446-966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홍석기 (1965. 9. 5.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남성로 156-1, 1층(삼도이동)

상기자는 2025년 11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2월 4일 제주지방법원 2025느단589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월랑북길 29, A동 201호 (노형동, 덕진빌라)

2026년 2월 10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홍유민, 홍유나, 홍준혁, 홍승연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작명☆택일☆사주☆운세 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 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 철학원 창업반(통변중심)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